
일본 오키나와 해군기지 등 시찰 보고서

2009. 12.



목 차

□ 시찰 개요	02
□ 일반 현황	03
□ 오키나와현청 등 방문 결과	04
① 오키나와현청 방문 면담	04
② 오키나와현 상공회의소 방문 면담	13
③ 오키나와현 평화기념공원 및 안보의 언덕 방문	15
□ 시사점	17

일본 오키나와현 해군기지 등 시찰 개요

▶ 제주발전연구원 주관,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하여
 “민·군복합형 관광미항 및 도서지역 항공정책” 사례조사 추진

□ 개 요

- 기 간 : 2009. 12. 15 ~ 12. 19(4박 5일)
 - ※ 12. 17 : 오전/오키나와현청, 오후/오키나와 상공회의소
- 대 상 : 일본 오키나와현
- 주 관 : 제주발전연구원
- 출장자 : 3명
 - 제주발전연구원 : 원장(유덕상), 연구위원(신동일)
 - 제주자치도 : 자치행정과(강상웅)
- 내 용 : 해군기지 및 도서지역 항공정책 등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도정정책 반영 추진

□ 주요 일정

일 시	시 간	세 부 일 정
12.15 (화)	08:30 ~16:30	제주→김해→후쿠오카→오키나와
12.16 (수)	09:00	안보의 언덕 방문(카데나 공군기지 주변 실태 확인)
12.17 (목)	10:00 ~12:00	오키나와현청 방문 - 해군기지 및 도서지역항공요금 정책 관련자 면담·자료조사
	14:00	오키나와현 상공회의소 방문 - 해군기지 관련 자료 조사
12.18 (금)	09:00	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 방문
12.19 (토)	08:50 ~16:20	오키나와→후쿠오카→김해→제주

일 반 현 황(오키나와현-제주자치도 비교)

구분		오키나와현	제주특별자치도
위치		동경 131°, 북위 26°	동경 127°, 북위 33°
면적		2,267km ² (전국의 0.6%) ※ 본섬 면적 : 제주도의 약 2/3	1,848km ² (전국의 1.9%) ※ 서울, 싱가포르 약 3배
인구		138만명(전국의 1%)	56만명(전국의 1%)
산업 구조	1차	2.2%	16.4%
	2차	14.6%	3.4%
	3차	83.2%	80.2%
평균기온		22.4℃(10℃~35℃)	16.5℃(0℃~34℃)
유인도		41개(총 160개섬)	8개(총 63개섬)
관광객		5백만명('03년) ※ 583만명('08년)	5백만명('05년) ※ 648만명('09년)
본토와 소요시간		비행시간 2시간 (후쿠오카→오키나와 나하공항)	비행시간 1시간 (제주→김포공항)
영사관		IMF 이후 폐쇄 (후쿠오카 총영사 관장)	일본국 총영사관('97)
섬 관광 정책 포럼	개최	3회	3회 ('97 : 창설 및 1회 개최)
	참가	총 13회('97~'09)	총 13회('97~'09)
군 부대		미군기지(해군, 공군, 해병대) 일본 자위대	해군, 공군

오키나와현청 및 상공회의소 등 방문 결과

① 오키나와현청 방문 면담

【 항공정책 관련 담당자 면담 】

□ 개 요

- 일 시 : '09. 12. 17(목) 10:00~11:00
- 브리핑 : 오키나와현 항공정책과 교통기획반장
(요시다가 마이자도)
 - ※ 통역 : 김연숙(오키나와 현청 직원, 제주출신)
- 내 용 : 오키나와 항공 정책에 대한 브리핑 및 질의답변

□ 브리핑 내용

1. 오키나와 항공노선 : 총 43개노선(국내 29, 현외 4, 현내 10)

☞ 국제노선 : 오키나와↔서울, 타이베이, 상하이, 홍콩

2. 오키나와 현내 항공노선 보조제도 운영 상황

① 운항비 보조제도(국고보조대상노선) - 전국 일률의 보조제도

- 보조대상노선 : 선박으로 2시간 이상 거리 섬, 또는 1개회사만 운항하는 노선
- 보조대상사업 : 항공기에 관련된 부품 구입비 보조
- 보조금 상한액 : 전년도의 경상손실액의 90%

② 항공기 구입비 보조제도

- 보조대상요건 : 9명 이상의 여객을 태울 수 있는 비행기중에 국토교통성령에 정해진 조건이 1,500m이하 길이의 활주로로 이·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
- 보조대상경비 : 항공기 구입비의 약 90%

3. 오키나와의 항공노선 공조공과의 경감조치

① 나하~본도노선의 특례조치

- 도서현인 오키나와현은 현민생활의 복지향상 및 산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항공은 중요한 교통수단임
- 오키나와진행책의 일환으로서 항공운임을 삭감하기 위해 공조공과의 감면조치를 실시함(실시기간 : '09. 7. 1~'11. 3.31)
- 감면제도
 - 항공기 연료과세 : 1/2 감면(일본 본토 공항간은 감면 안됨)
 - 국가관리공항의 이착륙료 및 공항사용료 : 1/6 감면

② 주변섬의 항공노선 특례조치

- 항공기 연료과세 및 국가관리 공항의 사용료 감면
- ※ 전국일률의 경감조치

③ 현내 주변섬 항공노선에 관한 오키나와현 독자적 시책

- 현내 이도 항공노선의 운임경감을 위해 현관리 공항의 착륙료를 감면하고 이것을 토대로 항공회사가 이도 주민을 대상으로 할인운임제를 실시('07. 10월부터 실시)
- 감면제도
 - 현관리 공항의 착륙료 : 15톤이하 면제, 15톤초과 20% 면제
 - 주변섬 주민할인 운임제도 : 할인율은 운임의 31%~35%

4. 오키나와 항공노선의 앞으로의 대책

《 현내 노선 》

- 오키나와 본도와 이도 사이를 연결하는 현내 노선은 주민의 이동과 생활문자의 운송을 비롯하여 지역의 산업진흥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어 이 노선의 유지와 확보에 힘쓰고 있음

《 현외 노선 》

- 도서현인 오키나와현은 사람·물자·정보 등 상호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항공교통의 역할이 중요함
- 특히 주력산업인 관광·리조트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현외항공 네트워크의 확충에 주력하고 있음

《 국제선 》

- 오키나와는 아시아·태평양연안에 근접한 지리적 특성, 아열대·해양성이라는 자연적 특성 및 국제성이 풍부한 역사적 특성을 갖고 있음
- 이와 같은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아시아게이트웨이의 거점형성에 상응하는 국제공항네트워크의 확충에 주력하고 있음

□ 질의 답변사항

- 나하~본도간 항공노선에 대하여 1997년부터 한시적으로 공조공과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
 - ☞ 그 시기에 오키나와 진흥법이 제정되며 지원 근거 마련
- 제주도에서는 도민들에게 항공료 할인(10%)을 하고 있는데, 오키나와에도 현민들을 위한 할인제도가 있는지
 - ☞ 현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할인제도는 없음
 - ☞ 항공사에 보조함으로써 항공료의 30% 할인효과 발생
 - ☞ 일본인 전체가 대상이므로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로 주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
- 공조공과를 실시하기전 관광객이 200백만에서 실시한 후 관광객이 600만으로 증가했는데, 공조공과 제도에 의한 효과인지
 - ☞ 일본은 항공료에 대하여 다양한 패키지를 갖고 있으며, 사전에 예약하면 항공료가 싸
 - ☞ 하지만, 공조공과제도 이후 오키나와 관광객 증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봄
- 오키나와 항공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요구하는게 있는지
 - ☞ 현재 정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, 이는 오키나와에는 해당되지 않음
 - ☞ 그 대신에 항공요금 할인 혜택을 요구하고 있음

- 항공정책과 관련하여 현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은
 - ☞ 오키나와 주변섬 주민들에게 카드를 만들어 이를 제시할 경우 할인하는 제도 홍보
 - ☞ 그 외 항공요금 정책과 관련하여 본도와 차별화되는 정책이 없으므로 별도 홍보는 하지 않고 있음



(오키나와현 항공정책과 브리핑 모습)

【 미군기지 관련 담당자 면담 】

□ 개 요

- 일 시 : '09. 12. 17(목) 11:00~12:00
- 브리핑 : 오키나와현 기지대책과장(히로시 마츠다)
 - ※ 통역 : 김연숙(오키나와 현청 직원, 제주출신)
- 내 용 : 오키나와 미군기지 관련 브리핑 및 질의답변

□ 브리핑 내용

1. 역사적 배경

- 태평양전쟁에서 오키나와는 일본 국내에서 유일하게 주민이 희생된 지상전이 일어난 곳으로 「철의 폭풍(鐵의 暴風)」이라

불린 폭탄투하와 폭격에 의해 녹지가 많던 섬이 초토화 되었고, 이 대전에서 미·일 양국의 병사뿐만 아니라, 일반주민들을 포함하여 약 20만명이라는 존귀한 목숨을 잃었음

- 오키나와에 상륙한 미군은 일본 본토의 진공의 거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기지를 건설해 나가, 오키나와에는 광대한 미군기지가 건설되고, 미군에게서 오키나와는 「태평양의 요석」의 역할을 하게 되었음
-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체결에 의해 오키나와는 미군 통치하에 놓여 27년간 지속되었고, 1972년에 현민이 바라던 일본으로의 복귀가 실현되었음
- 일본으로 복귀했지만 현민의 소망과 반대로 많은 미군기지가 그대로 일미안전보장조약에 근거하여 제휴시설로서 계속 사용되어 과밀한 기지의 상황은 개선되지 못했고, 현민은 과중한 기지 부담을 떠 안게 되었음

2. 주제 오키나와 미군의 현황

① 총괄

시설 수	34개소
시설면적	23,293.3헥타르(오키나와현 총면적의 약 10.2%) 이 가운데 미군전용시설 22,924.5헥타르 (주재 오키나와 미군전용시설의 약 74.2%)
군인·군속·가족 수	합계 : 40,416명 군인 : 21,277명(주일 미군 전체 : 33,286명) 군속 : 1,347명 가족 : 17,792명

※ 시설 수 및 시설면적은 2008년 3월말 기준
군인·군속·가족 수는 2008년 9월말 기준

②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내 군별 군인수의 비율

- 해병대 58%, 공군 28%, 육군 8%, 해군 6%
- 군별 구성비율을 보면 해병대의 비율이 높음

③ 일본내 미군전용 시설면적의 구성비

- 구성비(100%) : 오키나와현 74.2%, 아오모리현 7.7%, 카나가와현 5.9%, 야마구치현 2.2%, 그 밖 5.7%
- 오키나와현에 일본전국 미군전용시설면적의 약 75%를 차지하고 있음
- 오키나와 미군시설의 대부분이 오키나와 본토에 있고, 오키나와 본토 면적의 약 18.4%를 차지하고 있음

3. 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

○ 항공기 소음

- 후텐마비행장과 가까운 후텐마 제2초등학교는 끊이지 않는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

○ 항공기 사고

- 1996년 6월에 카데나비행장에서 일어난 AV-8해리어 추락사고
- 1998년 7월에 캠프한센 내에서 일어난 해병대 군속의 UH-1N헬리콥터 추락사고
- 2004년 8월 오키나와국제대학에서 해병대 소속의 CH-53D 헬리콥터 추락사고

○ 들판의 화재

- 2000년 3월 캠프 한센 내, 제2구역의 화재

○ 환경오염

- 미군 온나통신소 반환지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수은과 PCB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됨

4. 미군 구성원 등에 의한 범죄 검거 현황

(단위 : 명)

구 분	2004	2005	2006	2007	2008
계	59	66	57	63	70
흉악범	1	2	3	6	7
난폭범	12	7	10	2	5
절도범	23	28	21	27	14
지능범	3	7	9	14	20
풍속범	4	1	0	0	1
기 타	16	21	14	14	23

※ 2004년부터 미군에 의한 범죄 발생건수가 크게 변동되지 않고 있음

5. 현 경제에 미치는 영향

○ 미군기지 관련 수입

(단위 : 억엔)

구 분	계	미군 소비활동	군용지 사용료	군고용자 소득	기타
1972년	777	414	123	240	-
2006년	2,156	746	777	516	117
증 감	1,379	332	654	276	117

※ 미군기지 관련 수입은 일본으로 복귀시기인 1972년에는 현민 총소득의 15.5%를 차지하였는데, 2006년에는 수입액이 약 2.8배 늘었지만 현민 총소득의 5.4%로 감소

○ 미군기지 관련 종업원수의 추이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AAFES	해병대	공군	해군	육군
1972년	19,980	1,622	1,951	2,809	541	13,057
2008년	8,928	1,578	3,017	2,996	555	782
증 감	-11,052	-44	1,066	187	14	-12,275

※ 일본으로 복귀시기인 1972년도에는 육군 종사자수가 65%로 제일 많았으나, 2008년도에는 해병대 종사자수가 34%로 제일 많음(AAFES :: Army & Air Force Exchange Service)

6. 미군기지 재편을 위한 일미의 로드맵(2006. 5. 1)

《 오키나와의 재편 》

- 후텐마비행장의 대체시설
 - 후텐마비행장의 대체시설을 캠프 유와브구역에 설치한다.
- 병력삭감과 콤팩트로 이전
 - 제3해병기동전개부대의 요원과 그 가족 약 9천명이 2014년까지 오키나와에서 콤팩트로 이전한다.

《 토지의 반환 》

- 일미 양 정부는 2007년 3월까지 통합을 위한 상세한 계획을 작성한다. 이 계획에서는 아래의 8개 후보시설에 대해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반환이 검토된다.
 - 캠프쿠와에, 캠프 즈케랑, 후텐마비행장, 마키항보급지역, 나하항만시설, 육군 저유시설 제1쿠와에 저유소

《 시설의 공동사용 》

- 캠프·한센은 육상 자위대의 훈련에 사용되고, 시설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동사용은 2006년부터 가능하다.
- 항공자위대는 그 지역에 소음 영향을 고려하면서 미군과의 공동 훈련을 위해 카데나비행장을 사용한다.

《 훈련의 이설 》

- 카데나비행장의 항공기가 자위대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설 훈련에 참가한다.
 - 치토세(홋카이도), 미사와(아오모리), 하쿠리(이바라키), 코마츠(이시카와), 츠이키(후쿠오카), 뉴타바루(이야자키)

□ 질의 답변사항

- 미군기지(해군기지)에 대한 환경훼손 및 오염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

- ☞ 앞서서 브리핑했듯이 미군기지 관련한 문제점은 주로 항공기와 관련된 사고 및 소음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음
- ☞ 또한, 오키나와에는 해병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많고, 이들이 일으키는 범죄들 때문에 문제가 있음
- ☞ 오키나와 해군기지는 주로 잠수함 기지역할을 하고 있으며, 종사자와 면적도 크지 않아 환경문제 및 지역주민들과 마찰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
- ☞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항공오염 문제는 지하 송유관 펌프시설 기름 누수 정도임
- 미군기지내 민간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있는지
 - ☞ 미군기지는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군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
- 미군들이 대민봉사 활동은
 - ☞ 해양청소, 지역주민들을 위한 영어강좌 및 장애인 운동회 개최 정도임
 - ☞ 또한, 현민들 자녀들도 미군기지내 설치된 매릴랜드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
- 미군 해군기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은
 - ☞ 오키나와 해군기지 면적은 크지 않은 편이며, 핵잠수함이 취항하는 기지로 보완이 요구되는 시설로써 지역주민들과 격리되어져 있어, 지역주민들과 별다른 마찰은 없음
 - ☞ 전쟁 발발시 일본 본토에 있는 사세보 해군기지에 집결하여 모든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있음
- 미군 해군기지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
 - ☞ 카데나비행장 전경을 관람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<안보의 언덕>으로 명명하여 관광자원화를 하고 있음



(오키나와현 기지대책과 브리핑 모습)

2 오키나와현 상공회의소 방문 면담

□ 개 요

- 일 시 : '09. 12. 17(목) 14:00~15:00
- 면담자 : 오키나와현 상공회의소 전무이사(나카다 히데미츠)
※ 통역 : 김연숙(오키나와 현청 직원, 제주출신)
- 내 용 : 오키나와 지역경제 실태 및 미군기지 등 관련 대화

□ 상공회의소 전무이사 발언내용

- 오키나와는 태평양 남쪽 동남아시아에 근접해 있어 이 지역이 거점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함
- 오키나와는 섬으로써 항공노선 문제가 매우 중요하며, 항공노선 확충을 위하여 항공기 유류대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
-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항공편 증설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음. 특히, 동남아시아 직항 항공노선을 늘리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, 제주자치도와도 인적교류를 활발히 해나갈 계획임

- 제주자치도의 해군기지 건설 관련하여 평화의 섬 이미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홍보할 필요가 있음

□ 질의 답변사항

- 미군기지(해군기지)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
 - ☞ 미군기지가 들어설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이 고용 및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었는데, 이후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기지 관련 영향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
- 미군기지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입장은
 - ☞ 오키나와 북부지역은 많은 숲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, 미군기지 건설로 인해 일부 숲이 파괴되었음
 - ☞ 오키나와 미군기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큰데 비해 지역경제에 기대만큼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. 미군기지 반환시 이 부지를 활용하여 공장 등을 유치할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음
- 미군 해군기지로 인하여 민간인 배의 입출항이나 투자유치, 또는 주민불편 사항은 있는지
 - ☞ 현재 미군기지와 관련하여 별다른 주민불편사항은 없음



(오키나와현 상공회의소 방문 면담 모습)

3 오키나와현 평화기념공원 및 안보의 언덕 방문

《 평화기념공원 방문 》

- 오키나와는 세계 2차대전시 격렬한 격전지로 미·일 양국의 병사 뿐만 아니라, 일반주민들을 포함하여 약 20만명이 사망하였음
- 그래서 그때 전쟁에서 희생되었던 희생자와 위령탑들이 많이 세워져 있으며, 우리 한국인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도 이 곳에 세워져 있음
- 오키나와 본도 남부의 유명한 관광지인 마부니 언덕일대에 평화의 기념공원, 자료관 및 평화 기념탑들이 건설되어 전쟁에 대한 경고와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
- 이곳에서 전쟁에 사망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하고, 전쟁의 기록들을 보존하여 후세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
- 또한, 오키나와 평화공원 근처에 건설된 한국인 위령탑은 1941년 태평양 전쟁당시 강제 징병당한 한국인들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전사되거나 학살된 한국인 희생자들의 원혼을 풀어주기 위한 위령탑임



(한국인 위령탑)



(한국인의 이름이 새겨진 평화의 초석)

《 안보의 언덕 》

- 오키나와 미군기지 내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주차장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(4층 건물)에 마련된 전망대에서 미군 카데나 공군기지 내부 전경을 볼 수 있고, 밑층에는 전시자료관이 있음
- 전망대에서는 카데나 공군기지의 활주로, 전투기, 수송기 및 격납고 등을 내려다 볼 수 있으며, 비행기 이·착륙하는 모습도 가끔 볼 수 있음
- 현재 일본에서 오키나와현의 후텐마 미군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 정치 이슈화가 됨에 따라 여기를 방문하는 자국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음



(안보의 언덕 전경)



(카데나 공군기지 관람객들)

시 사 점

【 오키나와현 항공정책 관련 】

- 오키나와현의 항공정책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제주도민들을 위한 항공료 10%할인 정책과 같이 현민들을 위한 항공료 할인 정책은 활용하지 않고 있음
- 그 대신에 오키나와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에게 유류세 경감 및 이착륙료, 공항사용료 할인 등을 통하여 항공료를 30%정도 인하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음
- 오키나와현민 뿐만 아니라, 일본인 전체가 항공료 인하 혜택을 받음으로 인하여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, 이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음

【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관련 】

-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들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, 기지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있어 지역 주민들과 격리되어 있음
- 오키나와 미군 관련 범죄는 주로 해병대가 일으켜 해병대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는 편이며, 오키나와내 미군 해군기지와의 관련하는 지역주민들과 별다른 마찰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
- 미군기지와의 관련한 관광자원이 1개소 밖에 없다는데 대하여 다소 의외이며, 오키나와현 당국에서도 관광자원에는 의지가 없어 보임
- 오키나와 미군기지가 항공기 사고 및 소음문제, 미군에 의한 범죄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미군기지가 일본 안전보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따라 미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할 하는 분위기임

- 오키나와 미군기지 실태를 살펴보면 제주자치도의 강정마을에 설치할 해군기지와는 매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
-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제주자치도에 건설예정인 해군기지의 제일 큰 차이점으로는 폐쇄성과 개방성에 있다고 보여짐
- ※ 제주자치도 강정마을에 건설하는 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·개방형 항만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용 및 복지시설로의 프로그램 개발 뿐만 아니라 크루즈항으로의 이용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군향으로 오키나와와는 개발모델에서 큰 차이를 보임

【 오키나와현 상공회의소 면담 관련 】

- 처음 미군기지가 들어설 때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지만, 오키나와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미군기지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여짐
- 또한,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폐쇄성 및 지역 봉사활동 등이 활발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과 화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부 주민들에게 반환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함
- 따라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해군기지는 이라크에 파견한 자이툰부대 대원들이 적극적인 대주민 봉사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과 화합한 성공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, 해군기지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